

Juhun Lee

Professor Hyejin Kim

Translation Practicum

5 June 2024

뽑기 Part 1

6월 27일 아침은 맑고 햇볕이 내려쬰는 상쾌한 한여름날이었다. 꽃은 한가득 피어났고, 잔디는 싱그러운 푸른색을 뽐냈다. 열 시 즈음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체국과 은행 사이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마을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6월 26일부터 꼬박 이틀을 뽑기에 쓴다는 모양이지만, 인구 300명 남짓의 이 마을에서는 두 시간이면 끝났다. 열 시에 뽑기를 시작하면 열두 시에 모두 집에서 점심을 양껏 먹을 시간이 남을 터였다.

당연히 먼저 모인 것은 아이들이었다. 얼마 전 여름방학을 맞아 어색한 해방감을 만끽하던 아이들은 쭉 벗거리며 잠시 조용히 모여 있다가도 부산스럽게 놀기 시작했다. 여전히 이야기 주제는 학교 교실과 선생님 이야기였고, 숙제로 읽은 책과 수업 중에 들은 꾸중 이야기였다. 바비 마틴은 일찌감치 주머니에 돌을 가득 채워넣었고, 다른 남자아이들도 바비를 따라 동그랗고 매끈한 돌을 찾아 주머니에 넣었다. 바비와 해리 존스와 디키 들라크루아(마을 사람들은 다들 ‘텔라크로이’라고 불렀다)는 광장 한구석에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고선 다른 남자아이들이 흠치지 못하게 그 앞을 지키고 섰다. 여자아이들은 어깨너머로 남자아이들을 흘깃거리며 저들끼리 재잘거렸고, 어린 아이들은 먼지밭에서 뒹굴거나 언니오빠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곧 남자들이 모여 아이들을 살피면서 서로 농사일과 강우량을 걱정하고, 트랙터와 세금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돌무더기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서 소리 내어 웃기보다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빛바랜 실내복과 스웨터를 입은 여자들은 잠시 뒤 남편들을 따라 도착했다. 각자 남편이 서 있는 곳으로 향하며 여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십거리를 수군거렸다. 남편 곁에 서자 여자들은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이름을 네다섯 번 부르기 전까지는 들은 체도 았다가 슬금슬금 부모님에게 걸어왔다. 바비 마틴은 어머니의 손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이곤 깔깔거리며 돌무더기 옆으로 도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자 바비는 곧장 돌아와 아버지와 큰형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뽑기는 광장 무도회나 청년 클럽, 할로윈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회 활동에 참가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

서머스 씨가 주도했다. 서머스 씨는 동그란 얼굴에 쾌활한 성격을 가진 남자로, 석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데다 매일같이 아내의 잔소리를 견디고 사는 서머스 씨를 측은히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다. 그가 검정 상자를 가지고 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은 서로 웅성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머스 씨는 손을 흔들어 보이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사람들을 불렀다. 우체국장 그레이브스 씨가 서머스 씨를 따라 세 발 의자를 가져와 광장 한가운데에 두었다. 서머스 씨는 그 위에 검정 상자를 올려두었다. 서머스 씨가 상자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 좀 빌려주실 분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머뭇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로 마틴 씨와 장남 백스터가 나와서 의자 위에 검정 상자를 단단히 붙들었다. 서머스 씨는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어 종이조각을 휘저어 섞었다.

원래 쓰이던 뽑기 상자는 잃어버린지 오래고, 당장 의자에 놓인 검은색 상자는 마을 최고령인 워너 영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쓰던 물건이다. 서머스 씨는 몇 번이나 상자를 새로 만들자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그 누구도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인 검정 상자를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 쓰는 상자를 만들 때 이 마을을 개척한 이들이 가져온 상자 파편을 썼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매년 뽑기가 끝나면 서머스 씨는 상자를 새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꺼내지만, 항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상자는 해가 갈수록 허름해져 이제는 완전한 “검정” 상자조차 아니었다. 모서리는 쪼개져서 나무 색이 드러났으며 어떤 면은 물감이 흐릿해지고 어떤 면은 다른 색으로 물들었다.